

마음 · 세상 · 자연

맑고 향기롭게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



2010 / 6



아침에 피어오르는 연꽃을 담은 수행시간!

- 기간 : 5월 28일 ~ 8월 24일
- 시간 : 매일 아침 7 ~ 9시
- 장소 : 길상사 설법전
 〈여름수련회 기간(7/24~8/10)은 도서관〉
- 대상 : 진지하게 수행을 하려는 분이라면 누구나
- 참여방법 : 시간에 맞춰 참선 장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 문의 : 길상사 중무소 3672-5945 / 교무실 3672-0036

<유의사항>

1. 묵언 2. 핸드폰 전원은 끕니다.
3. 시간(입실시간, 퇴실시간)을 지킵니다.
4. 다른 분의 정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삼가합니다.

<시간표>

- | | |
|--|----------------|
| 7:00 입실 | 7:10 ~ 8:00 정진 |
| 8:00 ~ 8:10 행선(늦게 오신 분들 입실, 일찍 가실 분들 퇴실) | |
| 8:10 ~ 9:00 정진 | 9:00 방선 |

※ 아침 좌선 수행 시간에는 주지스님을 비롯, 사중의 스님들도 함께 정진하실 예정입니다.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0 / 6

다시 읽는 산방환담 / 범정	4	봄은 가도 꽃은 남고
시심정심 / 박희진	6	수십 년 전의 일
이달의 법문 / 덕현	7	우울한 자리
스님과 나 / 정형일	11	봉은사에서 뵈 법정스님
마음을 맑게	14	5월 주말 선수련회 소감문
맑고로 온 편지	17	장학금, 밀반찬, 사무실
나누는 기쁨 / 각 봉사모듬	20	5월 활동
맑고 향기롭게 활동 소식	25	서울모임
	28	부산, 대구, 경남모임
여기는 길상사	30	6월의 길상사 소식 모음
이런저런 얘기	32	<무소유>만 법정 스님의 책?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0년 6월 1일 발행 / 통권 184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여운현 / 편집장 이성학 /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7 전송 741-4698 / 인쇄인 황두진 / 인쇄처 계명문화사 / 부산모임:(051)898-2672~3 / 대전모임:(042)823-0770 / 경남모임:(055)266-0170 / 광주모임:(062)236-3129 / 대구모임(053)753-8883 / <http://www.clean94.or.kr> E-mail: wlotus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6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E-mail: kilsangsa@hanmail.net



봄은 가도 꽃은 남고

「홀로 사는 즐거움」 중에서

法 頂 (스님)

오두막 들레에는 5월 하순인 요즘
 민들레와 철쭉과 듬성듬성 피어난
 복사꽃이 볼 만하다. 앞마당 가득
 민들레가 노랗게 피고 진다. 혼자서
 풀을 매기가 힘에 겨워 그대로 두었
 더니 천연스런 꽃밭이 된 것이다.
 분홍빛 철쭉은 뜰 가에서도 피고 벼
 랑 끝에서도 핀다. 눈길이 자주 간
 다. 한 가지 꺾어다 식탁에 꽂았다.
 가까이 대하니 참으로 곱다.

이 오두막에 살면서부터 나는 봄
 을 두 번씩 맞이하는 셈이다. 남쪽
 에서 매화와 진달래와 산수유와 벚
 꽃과 복사꽃과 모란을 실컷 보았는
 데, 초여름에 접어들면서 이곳에서
 는 봄꽃들이 뒤늦게 문을 연다.
 ‘봄은 가도 꽃은 남고(春去花猶

在)’란 옛 글 그대로다.

오늘 아침 뜰에 가득 피어난 민들
 레를 보면서 문득 아, 나는 부자구
 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입을 책 곁에 있고, 햇차도 들어
 왔고, 열린 귀로 개울물 소리, 새소
 리, 때로는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가. 이밖에 무엇으
 더 바라겠는가.

예전에 살던 절에 들러 내가 심어
 놓은 나무들이 정정하게 자란 것을 볼
 때마다 대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나무들의 말없는 반김은 가슴으로
 스며든다. 허공으로 높이높이 자라
 오른 우듬지를 바라보고 줄기를 쓰
 다듬고 팔을 벌려 안고서 얼굴을 부
 비기도 한다. 그러면 내 가슴이 따

뜻한 기운으로 차오른다. 이 따뜻한 기운은 나무가 내게 건네주는 온기 일 것이다.

이 터전에서 사람들은 세월 따라 오고가겠지만 나무들은 의연하게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진 뒤에도 심어 놓은 나무들은 정정하게 서서 내 그림자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몸담아 사는 둘레에 나무를 심으라. 그 나무들이 당신의 친구가 되어 지치고 상처 받은 삶에 위로와 생기를 나누어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지나간 후에도 당신의 자취로 남을 것이다.

나무나 꽃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 자연을 대하는 우리들의 인식은 달라진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이며 실험심리학자인 G. T. 페히너는 식물에도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식물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철학의 원리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이며 단지 그 결

모양만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식물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동물보다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 감각은 동물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 동물은 몸 전체를 움직여 먹이를 찾지만 식물은 몸의 일부분만으로 그 일을 해낸다. 사람들이 어둠속에서 목소리로 서로를 분간하듯이 꽃들은 향기로서 서로를 분간한다.

페히너는 이런 상상도 하고 있다.

‘식물은 인간이란 두 발을 가진 짐승은 왜 저리도 분주하게 돌아다닐까 궁금해 하면서 자신이 뿌리내린 곳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뛰고, 떠들어대고, 게걸스럽게 먹어대는 영혼이 있다면, 침묵 속에서 꽃을 피우고 향기를 뿜으며 이슬로 갈증을 풀고 새싹으로 충동을 분출시키는 영혼도 있을 법하지 않은가.’

서로의 향기로서 대화를 나누는 꽃에 비해 인간들은 말이나 숨결로써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다. 꽃이 훨씬 우아한 방법으로 서로를 느낀다. 인간인 우리는 꽃에게 배울 바가 참으로 많다. 



수십 년 전의 일

박 희 진

백년탐물 일조진 삼일수심 천재보
百年食物 一朝塵 三日修心 千載寶

백년을 두고 물질을 탐한들
하루 아침 티끌에 지나지 않네
사흘 만이라도 마음을 닦는다면
천년을 가는 보배가 되련만

법정 스님 초대로 불일암佛日庵에서
사흘을 지냈지요. 그가 손수 끓여준
칼국수도 맛있게 먹었건만
꿈결처럼 사흘은 후딱 가버리고

작별의 때가 오자 나는 말했다.
금쪽 같은 사흘을 그냥 어영부영
지내고 말았으니 참 아쉽군요.

법정은 위로하듯 내게 말했다.
그냥 무심 사흘이면 나쁠 것 없죠
수심 사흘이나 무심 사흘이나



박희진(朴喜璣, 1931~) 시인. 경기도 연천 출생, 고려대 영문과.
시집 <연꽃 속의 부처님>, <백사백경(百寺百景)> 등이 있다.



우울한 자리

德 賢 (본모임 이사장, 길상사 주지)

며칠 전 「맑고 향기롭게」의 이사장이 되었다. 겨우 겨우 소집된 이사회에서 가까스로 이사장으로 호선된 것이다.

살면서 무엇이 되고 싶거나 무슨 감투를 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도 많다.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내든 다듬어 속으로 갈무리하든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자존감自尊感을 지니고 살고 싶어하며, 그것은 미래에, 혹은 사후에 타인들이나 심판자로 믿어지는 존재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될 그 순간의 심경보다 훨씬 진실하고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삶의 끝은 결국 자기 자신이고, 지나온 궤적에 대한 궁극의 평가는 마침내 스스로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승의 입적과 「맑고 향기롭게」의 이사장 선임을 전후하여 나는 길상사 주지가 되었을 때 못지않게 몹시 마음이 무겁고 스스로에 대하여 깊은 연민과 비애감을 곱씹지 않을 수 없었다.

죽음이 임박한 미래의 어느 날, 나는 이 대수롭지 않은 사건을 스스로 좋은 일로 추억하게 될지 부끄러워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으로 회상하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어쨌든 지금 심경은 슬프고 우울하다.

우리는 ‘헛이름 나기 전에 수행하라.’는 말을 종종 들으며 중

노릇을 해왔다. 도인이니 큰스님이니 하고 알려지기 전에 생사를 흰칠하게 벗어나 몸소 진리를 증득하고 모든 인연에 걸림 없이 중생을 교화할 자기 살림살이를 갖추라는, 체험에서 우러난 고인들의 고백이다. 그런데 이사장이 되어서 간간히 축하한다는 말을 들을수록 더 우울해지는 까닭은 이미 나기 시작했는지 모르는 ‘헛이름’에 속으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신세를 한탄해서만이 아니다. 누구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 없는 저간의 사정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중생들의 모습에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것이다.

상고上古의 시대 이전부터 대륙의 중심에서 유랑하거나 떠밀려 이 반도에 이른 사람들의 집단무의식엔 분열과 동족상잔의 모티브가 병인病因처럼 잠복하고 있는 듯하다. 낱낱 백성들의 속내를 긍정적으로 보면 몹시 영민하고 재주가 많으며 펍 어질고 질직質直하고 정이나 걱정적 흥이 많은 이 땅 사람들의 천성에, 왜 타박네의 패배의식이나 한스러움, 울고 불며 얽히고 쥐어 뜯고 싸우는 소아적 경쟁주의가 침투하게 되었을까. 왜 군자의 풍모와 영웅의 기상, 대국적 포부를 지닌 사람은 그렇게 귀하고, 반도의 크고 작은 정치사는 이토록 속되고 비루하고 노여울까.

암울한 마음을 풀 길 없던 차에 서울을 벗어날 기회가 왔다. 양평 상원사에서 혼자 3년 동안 산문 밖을 나서지 않기로 하고 정진 중인 해안스님을 찾아 나선다.

그는 출가한 지 몇 년 만에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사람 같고 한국 스님보다 더 한국스님 같아진 바닷빛 눈빛을 지닌 영국인 스님이다. 차분하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매우 세련된 우리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구사한다. 한국 문화의 거의 모든 면모를 소상


~~~~~

“권세와 명리의 변화함은 가까이하지 않는 이가 깨끗하다고 하나  
가까이할지라도 물들지 않는 이가 더욱 깨끗하다.  
권모와 술수를 모르는 이를 높다고 하나  
알아도 쓰지 않는 이를 더욱 높다 할 것이다.”

히 이해하고 한의학에도 조예가 있으며 한국불교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심이 있어 우리 불교현실의 폐단과 병폐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 폭과 깊이에 체험적인 이해를 갖추고 깨달음을 향하여 진실한 실참實參의 길을 가고 있다.

비교적 길게 내린 봄비 뒤끝에 자연스러우면서도 시원스럽게 계곡의 바위틈을 타고 내리는 청류清流를 거슬러 오르며 차장을 여니 폐 가득 스며오는 흰구름.

상원사는 고려 말에 석옥 청공선사로부터 심인心印을 받아 임제종의 법맥을 이어오으로써 한국 선종사의 가장 장대한 물줄기를 열었던 태고 보우선사가 견성하신 곳이며 이태조를 도와 조신왕조를 개국케 한 무학대사가 오래 머물렀던 도량이라는 해안스님의 소개를 듣는다.

크지 않아도 무척 무계감 있게 잘 지어진 선원에 들어가 죽비를 들고 계신 문수보살상 앞에 삼배를 올린다. 해안스님의 방엔 조주스님의 영정 그리고, 효봉노사曉峰老師와 지금 살아 계신 우리 선지식 스님 몇 분의 작은 사진들이 모셔져 있었다.

“법정스님은 말세에 출현하기 어려운 대보살이셨고 수행인의 행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삶과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이 한 문장의 말로, 스님 입적에 당하여 전에 내게 보내왔던 편지와 마찬가지로 놀라운 한국말 실력을 새삼 과시한다.

~~~~~

말이 그냥 말이 아니고 한 인격의 가장 진솔한 노정임을 다시 일깨운다. 마치 낮빛이 그리하듯이.

산철이라 대중이 대부분 출타해서 빈 절. 다각실에 그와 마주 앉는다. 물 밖에 잠시 고개를 내민 잠수부처럼 나는 오랜만에 시간 밖에서 차다운 차를 마시고...취하였다. 나는 그와 함께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국경이 없는 나그네 길에서 놀며 범희선열에 소요할 머지않은 날들을 꿈꾸었다. 우리는, 하루 대부분을 시간을 짜고 틀고 앉아 있는 정진보다, 하루 몇 시간 제일 좋은 시간대에 울려도 하고 법문도 듣고 탁마도 하며 동정動靜에 일어난 공부를 지어가는 정진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사실 그를 찾아가는 길에는 길상사에 그 같은 스님이 같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제갈량을 삼고초려三顧草廬하는 유비 생각이 났었다. 그런데 오는 길에는 쿠바혁명을 성사시키고도 자신이 믿는 혁명을, 전리품 위에서도 아니라 길 위에서 완수하기 위해 다시 전장으로 떠난 체게바라를 떠올렸다.

졸다가 깨어보니 길상사가 가까워지고 있었고 채근담菜根談의 한 구절이 조금 쇠여가는 늦봄의 나물처럼 질긴 듯 참 맛이 우러나며 채식동물의 입안에서 오래오래 씹힌다.

“권세와 명리의 변화함은 가까이하지 않는 이가 깨끗하다고 하나 가까이할지라도 물들지 않는 이가 더욱 깨끗하다. 권모와 술수를 모르는 이를 높다고 하나 알아도 쓰지 않는 이를 더욱 높다 할 것이다.”

김을 거둔다.

나무인욕바라밀南無忍辱波羅蜜. 



봉은사에서 뵈는 법정스님

정 형 일

내 기억이 맞다면 그날은 1971년 12월 31일이었다. K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법정스님 이야기가 나왔다. 그 전해에 나는 법정스님이 써주신 소개서를 들고 구산 큰스님이 계신다는 절로 입산하려다가 사정이 생겨서 못가게 된 일이 있었다. 나는 이야기 중에 문득 법정스님을 뵈러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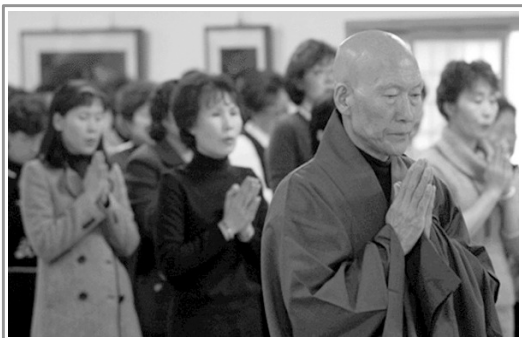
“오늘이 설달그믂인데 약속도 하지 않고 지금 가서 뵈 수 있을까요?”

“못 뵈면 못 뵈는 거지 뭐. 스님들은 약속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시간에 매이기 싫어 입산하신 분들이라 미리 시간약속을 하고 가면 그때부터 그 시간에 속박당하게 되니까 약속은 잘 안하신다고.”

실제로 대부분의 스님들은 속인과 시간을 정해 만나는 것을 물리친다.

나중에 뵈는 탄허 큰스님도 그랬다. 스님, 그럼 내일 열한시에 찾아뵈겠습니다. 와봐. 그때 내가 있으면 만나고 없으면 못나는 거야. 시간을 정해주시면 제가 거기 맞춰 오겠습니다. 이 사람아, 그때 와서 내가 있으면 만나고 없으면 못만난다니까. 그랬다. 하긴 산봉우리에 머무는 구름이 언제 시간약속을 하고 지낸단 말인가. 아무 때나 바람처럼 휘이 휘이 다른 산봉우리로 가서 머무는 것이 아니던가. 되도록이면 누구와 시간에 매이기 싫어하는 내 습성도 그때부터 생겼는지 모른다.

강남 어디서 봉은사로 가는 버스를 탔다. 비포장된 길이어서 차가 덜컹거렸다. 덜컹거리는 데다가 겨울안개가 자욱해지더니 나중에는 앞이 안보일 정도로 안개가 버스를 둘



리싸고 말았다. 안개 속으로 가는 버스가 몽환적인 분위기까지 자아내서 속세를 떠나 다른 세상으로 가는 느낌이 들었다. 안개는 점점 짙어져서 나중엔 아예 바깥 모습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되고 말았다. 지금 같으면 운전기사가 버스를 멈추고 불 일인데 그 시절엔 교통편도 드물었고, 우리가 봉은사까지 얼마나 걸리느냐고 처음부터 몇 번씩이나 물은 탓인지 버스는 가는 데까지 가보자는 속도로 바퀴를 굴렸다. 마치 그렇게라도 가지 않으면 안될 것처럼. 그렇게 헤매듯이 버스가 길을 더듬으며 기어가다시피 하며 한참 동안 굴러갔다. 그러다가 마침내 버스가 멈추어 섰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앞이 한치도 안보여서 더 이상은 못가겠

습니다. 자칫 사고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버스에서 내렸다. 이것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버스 승객은 어찌면 K와 나 둘뿐이었던 것도 같기도 하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고 보니 그곳은 신작로가 아니라 밭고랑이었다. 버스가 그만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고 밭고랑으로 들어와 버린 것이다. 자칫 안개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다. 나는 그때 원래 세상이란 것은 처음에 안개 속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결론을 내버렸다. 지금도 그 결론은 바뀌어지지 않았다. “봉은사를 지나와 버린 것이 아닌가요?”


버스 기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며 우리를 신작로쪽으로 안내해주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K에게 손을 내밀어 한 걸음 한 걸음 봉은사

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가까스로 K의 얼굴만 보일 정도로 안개가 천지를 감싸버린 세상은 몽환적이지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가는 길이 지금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있는 것만 같았다. 이 세상이 아닌 다음 세상, 정말 그런 느낌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불쑥 바로 내 눈 앞에 소나무가 나타났다.

봉은사에 당도하자 그곳은 지금까지 해매던 안개 속과는 판판으로 저녁의 경내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소나무숲이 안개를 물리치고 있는 봉은사는 다음 세상의 입구처럼 보였다. 안개 속 세상을 벗어나 판 세상에 들어온 것이다. K와 나는 법정스님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스님은 마침 계셨다. 내가 왜 구산 큰스님을 못 찾아갔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도무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스님도 내 옆에 서있는 K를 한번 쳐다보고는 물어보지 않았다. 스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소나무숲에 내리는 싸락눈소리를 들어보라고 했다. 스님과 K와 나, 셋은 봉은사의 어둑

한 소나무숲에 내리는 싸락눈소리를 한참동안 귀기울여 듣고 있었다. 그 순간을 무어라 했으면 좋을까. 점자로 만든 화염경을 손끝으로 더듬는 소리 같았다고나 할까. 한참을 싸락눈 소리에 귀를 빌려주고 있다가 스님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스님이 녹차를 준비해주셨고, 간단한 먹을 것을 내놓으셨다.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셨다. 내 기억은 이제 옛날 같지 않아서 그 방에서 나는 세세한 이야기들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다만 스님이 이제 잘 시간이 되었다고 한 말은 지금도 기억에 또렷하다.

“바깥세상은 안개가 짙어서 차가 다닐 수 없다니 오늘밤은 여기서 자고 가라구.”

대체 봉은사는 이 세상에 있는 절이었던가, 아니면 다음 세상에 있는 절이었던가. 법정스님이 이 세상에 안계시니 언젠고 물어보려니 했던 이 질문도 다음 세상의 인연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5월 주말 선수대회 소감문

어두운 동굴에서 혼자,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너무도 두렵고 외로운 시간이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습니다. 들을 이가 없기에 울어도 소용이 없을 테고, 그래서 눈을 감아봅니다. 눈 감으니 보입니다. 푸른 나무가 우거진 숲과 아름다운 풀이, 맑은 바람이 머리칼을 날리고, 고운 새 소리도 들립니다. 오월의 모란은 우아한 향기를 뿜어냅니다. 이제 눈을 뜨면 다시 어둠이겠지만 마음 속 한 구석에 작은 꽃씨 하나 심어봅니다. 싹이 틀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설레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만큼은.

- 인육반, 안00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감사하지도 않았고요. 어제 밤 법고를 치시던, 이제 막 출가하신 듯한 스님의 미소를 보고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이루려고 했던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부처님의 미소를 지으시던 그 스님을 보면서, 그 무엇이 저런 미소를 짓게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조금 변화된 마음가짐으로 살 것 같습니다.

- 인육반, 정00

혼자 정리하고 쉬고 싶은 마음으로 선수권을 신청했고 명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싶은 기대로 참석하였습니다. 아이와 같은 열린 마음으로 궁금해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한 수련이었지만 사실 ‘禪’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막연함에 혼자 답답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입을 다물고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어려운 세상에서 제대로 묵언하고픈 욕심도 있었고요, 간간이 다른 종교의 침묵 피정을 다녀온 적도 있었지만 끝까지 묵언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련의 침묵은 어린아이들 돌봄과 같은 세세한 손길과 안내가 있어 사실 껌연쩍은 가운데에서도 끝나는 시간까지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일도 이루고 나면 한동안 좋은 기억으로 향기롭습니다. 또한 가지 깨달은 것은 눈을 감았다 떠서 보려하니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희미하지만 눈 뜨고 보려하는 각성으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인육반, 흥OO

아직도 가슴을 울리는 범고 소리는 장관이었습니다. 돌아가서도 범고 울리는 소리가 귀에서 울릴 때마다 108배와 참선을 하겠습니다. - 지계반 정OO

TV방송을 통해 주지스님을 우연찮게 뵈고 예사롭지 않은 그 눈빛에 이끌려 길상사 선수련회를 선택했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진반, 마OO

이번 수련회가 세 번째인데, 올 때마다 길상사는 저에게 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5월은 봄이라 그런지 행사도 많고 주변경관도 좋아 사실 수련하는 데에 집중이 잘 되질 않았어요. 겨울 수련회에서는 없었던 영상자료들이 보충된 것 같아 훨씬 이해하기 빠른 것 같습니다. - 정진반, 김00

1박2일이란 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특히 촛불명상과 108배를 할 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 숫자를 속으로 세며 죽을 것 같이 다리가 아프던 그때와 너무 느낌이 달라 신기했습니다. - 정진반, 임00

아침 시간에 이토록 많은 일을 끝내고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불을 하고 청소를 하고서도 상쾌하게 아침을 먹고, 교리를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으레 늦잠을 자고, 많은 일을 미루며 지냈는데 일찍 일어나 아침과 함께 한 생활은 앞으로 제 삶에 꼭 적용해 볼 것입니다.

108번 절을 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습니다. 이렇게 깊이깊이 묵상하면서 아침의 위대함도 느꼈습니다.

무소유를 배워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배워가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데, 오늘 제 구슬을 꿰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진반, 이00



~~~~~  
[[ 장학생의 편지 ]] 박OO (고대부고 1학년)  
~~~~~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부고에 다니는 1학년 박OO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어
어서 서툴지만 감사의 편지를 올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장학금
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학금을 받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공
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는 바른 심성을 가지고 있으나 물질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자선사업가라는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비록 제가 지금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
지는 않지만 '지나가는 세월을 아쉬워할 게 아니라, 오는 세월
을 잘 쓸 줄 아는 삶의 지혜를 터득해야 된다'라는 법정스님의
말과 같이 지금부터라도 맑고 향기롭게에서 주신 장학금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자선사업가라는 꿈을 이루겠습니다. 저처럼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나누어 주고 나라
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3. 26)



~~~~~  
[[ 밑반찬 감사 편지 ]] 최OO (성북구 정릉3동)  
~~~~~

소생은 맑고 향기롭게의 도움을 받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행복
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잘 것 없는 소생에게 너무나도 많
은 도움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
니다.

쓰신 책을 읽고 싶다 하시어 구해드렸습니다.(시 중에서 구할 수 없었던 두 권을 빼고)

제가 아직 짝을 찾지 못해 혼자 있다 보니 어머니께서 손수 살림을 맡아하시며 조식을 챙겨 주시는데 아마도 그 시간과 주무시는 시간을 빼고는 늘 스님의 말씀이 담긴 책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구해드리지 못했던 두 권의 책도 마저 읽고 싶다 하시며 어떻게 구할 수 없느냐 하시기에 제 나름대로 여기저기 알아보았으나 여의치가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어머니의 정신이 맑으실 때 스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인데 어려우면 빌려서라도 보실 수 있게 해드리면 조금은 위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길상사에 갔던 것입니다. 그냥 전화로 알아볼 수도 있었으나 일상사무를 처리하듯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 마음이 허락 하질 않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맑고 향기롭게의 도움으로 어렵게 지방의 한 서점과 연이 닿아 그 책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에 고마움을 전하며, 스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서의 스님 도움이 크셨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어머니의 바람, 정말로 간절하신 그 오랜 바람을 덜어드려야 하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어렵군요. 아무래도 제가 전생에 덕을 많이 쌓지 못하고 업을 많이 지었나 봅니다. 공기 좋은 시골에서 어머니 모시고 나무를 심고 기르며 소박하게 살고 싶은 저의 이 소망을 이해하고 공유하며 함께 할 짝을 찾아야 되는데... 스님! 아마도 전생에 지은 업이 모두 소멸되는 그 날이 되어야 나타나겠지요. (2010. 5. 14)

모의원(2일, 매월 첫째 일요일)

(소감 : 한인섭 모듬장)

라일락 꽃향기가 그윽하게 풍기는 5월의 맑은 아침, 사당역으로 가자 등산가는 사람과 차량으로 붐빈다. 먼저 온 회원님들이 밝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법정스님 원적 이후, 꾸준히 회원이 증가하여 사당역에서 출발하던 카니발, 봉고 차량 외에 남호석 님의 소나타 차량을 섭외하여 잠실역에서 신규회원 3명을 태우기로 하였다.

처음 참가하시는 본부 이성학 기획실장과 함께 사당역을 출발하면서 잠실역에 대기 중인 남호석 님과 통화하자 조고희 님만 약속장소로 나왔을 뿐 나머지 2명은 도착하지 않고 핸드폰도 꺼져 있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출발하겠다고 한다. 좋은 날씨에 등산이나 나들이 대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 기분이 좋다.

오늘 작업은 고추발이랑 비닐씌우기 및 콩밭매기, 주방일손 돕기라고 한다. 먼저 밭짚모자를 눌러 쓰고 장화차림에 남정네들은 고추밭으로 가고 아낙네들은 콩밭으로 향했다. 아낙네들이 갓 세상구경을 나온 어린 싹을 조심스럽게 복돋는다.

남정네들은 고추밭 이랑 시작점에 비

닐을 퍼서 바람에 날리지 않게 흙으로 덮은 뒤, 한사람이 먼저 비닐을 잡고 밭이랑 위로 고루 퍼지게 하면서 지나가면 두 사람이 비닐이 바람에 날리지 않게 양쪽에서 따라가며 삽으로 흙을 덮고 또 두 사람이 뒤따라가며 마무리 작업을 한다. 날씨가 더워 삽질하기가 쉽지 않다. 허리를 펴고 잠시 쉬는 시간에 불어오는 한줄기 바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다.

뒤늦게 잠실역을 출발한 남호석 님과 조고희 님이 합류하여 고추밭 500~600평 비닐씌우기 작업을 오전에 마칠 수 있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모두들 별당에 모여 신규회원 및 기획실장님 소개에 이어 본부에서 지급한 법정스님 육성법문 CD 25개를 회원님들에게 전달한 뒤, 부처님오신날 행사 소개와 여수향 일암 답사 보고가 있었다.

이어 원심회와 진인선원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웃음치료사 김창수 님이 치매예방을 위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였다. 모두 김창수님의 손동작을 따라하지만, 마음 따로 동작 따로 한편의 코미디나 다름없다. 한바탕 웃고 난 뒤, 오후 작업인 콩밭 마무리 작업 및 초파일 맞이 주변 청소를 하였다.

오늘 발일은 잘 같고 닦았는데, 마음받은 잘 같고 닦았는지 모르겠다. 다음 달 봉사를 기약하면서 차에 몸을 맡겼다.

진인선원(9일, 매월 둘째 일요일)

(소감 : 이금재 모듬장)

만남의 장소 변화가 잠시 왔다가 다시 과거로 회기했다. 자원 활동을 마치고 귀하신 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 **장성자** - 새로운 인생을 날기 위하여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욕심을 내어 전주에서 올라왔다. 너무 너무 잘했다 생각한다. 최소한 두어 달에 한번이라도 참석하겠다.

■ **박성래** - 저도 나이를 먹을 것인데 어르신들께 선뜻 달려가 지지 않는다. 많은 노력을 하겠다.

■ **이미정** - 당구공이 가듯이 매달 댓글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이 오길 바란다. 오늘도 인원이 적어서 걱정했는데 채워주시는 부처님이 계시니 미리 미리 걱정하지 말아야 하겠다. 반가운 사람 만나서 고맙습니다.

■ **김창수** - 어저께 스님과 길상사와 인연 그리고 또 다른 강의활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진인선원에 와서 어르신들과 같이 나누면서 내속의 것

을 버리는 것이다. 벌써 5달째이다.

■ **홍보영** - 사물놀이 꽤와 와서 흥겹고 재미있고 어르신들이 더 즐거워하신다. 시간을 내어 나도 배우고 싶다.

전화말벗봉사(매주 한 통화씩)

봉사자별 월간활동 공유

(담당 : 엄경숙 모듬장)

■ **이찬희** - 공OO 할머니 전화 안 됨, 이OO 할머니 : 장애3급을 받아 생활보호사가 매일 2시간씩 와서 도와주고 있다. 어버이날에 대상자 3분을 만나고 왔다. 지난해 9월에 퇴었을 때보다 더 늙어서서 안타까웠다. 연꽃등을 만들어서 선물을 드렸다. 밑반찬 대상자 중에서 신규로 전화말벗하실 분을 물어보았는데, 의심하시는 분도 계셔서 조심스러웠다.

■ **이현주** - 어르신 중에 법정스님과 교향이 같은 분이 계셨다. 성당에 다녔지만, 생전에 길상사에 못 가봐서 죄송스러웠다고 하셨다.

■ **엄경숙** - 김OO 할머니가 아파서(어깨 관절) 침을 맞으시는데, 죽으려고 3일을 굶었다고 하신다. 3일을 굶었는데 안 죽고, 팔에 힘이 없고 기운만 없다고 하셔서, 밥 꼭 챙겨먹고 힘내시라고 하셨다. 박OO 님은 치아가 안

좋아 딱딱한 음식은 못 먹는다고 한다. 밖으로 놀러가서 노래 부르고 놀고 싶다고 하신다. 밭에 가서 일도 하고 된장에 상추쌈도 먹고 싶다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었다.

■ **서은영** - 여행을 다녀와서 전화를 1주일 못했다. 밑반찬 중에 특별식에 대해서 여쭙봤는데 특별식이 나오면서 반찬도 한두 가지 더 나오면 좋겠다고 하신다. 카레를 선호하셨다.

■ **안정희** - 장OO 할머니가 혼자 집에 계신다. 통화가 힘들었다.

■ **오은주** - 개인사정상 전화말뼉 봉사를 중단하려 하였다. 5월 8일 대상자들에게 전화하면서 새로운 봉사자를 연결해드렸으면 한다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부분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이라도 괜찮으니 전화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반찬량이 줄었다는 느낌이 든다. 대상자중 2명이 전화가 안 되는 상황이다.

■ **임진성** - 한OO 할아버지가 이사 후에도 계속 전화를 해주시니 참 고맙고 반가워하신다. 처음에는 그냥 몇 번 전화를 하겠지 생각했었는데, 계속 전화를 해주는 마음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신다. 윤OO 할머니는 딸이 사망하였

는데, 누구에게도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OO 할머니는 윤OO 할머니 반찬을 매번 전달해주고 있다. 착하신 할머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월요일)

(소감 : 권미자 모듬장)

3일 - 오늘은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어르신들께 손으로 빚은 만뚝국과 구충제 후원이 있었다. 지난 토요일에 약 500명의 봉사자분들이 오셔서 배추김치와 만두를 직접 만드셨다고 한다.

정성들여 만든 만두로 만뚝국을 끓여서 그런지 어르신들께서도 모두 아주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였다. 덕분에 봉사자들도 모두 모여서 점심으로 만뚝국을 먹으며 웃음과 이야기꽃을 피웠다.

10일 - 오늘은 반찬으로 콩치구이가 나왔다. 육류나 생선종류는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반찬이지만 가시가 많은 콩치는 드시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오늘도 맑고팀에 한봉사자께서 어떤 어르신의 식판에서 뭉가를 열심히 골라내고 계셨다. 궁금중에 가까이 가봤더니 손이 떨리셔서 생선가시를 발라드시지 못하는 어르신께 웃음 띤 얼굴로 생선가시를 깨끗이 발라드리고 계셨다. 그 모습이 맑고 향기롭

게의 노란 앞치마만큼이나 환하고 예뻐 보였다.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대하는 맑고 봉사자님들이 참 고맙다.

승가원(1, 3주 일요일)

(담당: 홍정근 봉사팀장)

5월 16일 연등축제에 참가하지 않은 승가원 장애아동들과 청소년봉사자들이 108염주 만들기를 하였다. 아동들이 염주알이 땡그르르 굴러가고 툭툭 튀어 오르는 것이 재미있는지 손으로 책상을 탁탁 쳐서 청소년들이 염주알을 꺾면서 힘들어하였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모두 108염주 만들기를 성공하였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특별한 시간을 가지는 좋은 시간이었다.

결식이웃 밀반찬 조리

(매주 목, 금요일)

(소감: 최두리 모듬장)

6·7일 - 잡채, 짜장, 다시마튀각. 지난 3주 동안의 메뉴, 우리 집과 결식이웃메뉴가 함께 했다. 자신이 없어 실제 재료를 준비해 만들어 보고 한 가구에 드릴 양을 저울에 재어보고 넉넉한 양을 준비한 덕분에 이웃집에 나눠 주고도 며칠 동안 똑 같은 반찬을 먹어야 했다. 그래도 무사히 할 수 있

었던 것은 예습을 해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3·14일 - 드디어 햇배추가 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싱싱하고 푸른 잎들을 보니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반갑기 그지없다. 3·4월엔 배추가격이 만만치 않아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걱정 끝. 맛난 김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20일 노현선 - <봉사자의 자세> 9년 전 5월 봄비 내리는 축축하던 날 지인과 함께 우연히 길상사를 찾았다. 우산을 쓸 정도의 가랑비는 경내의 운치와 더불어 우리를 감미롭게 만들었다.

그 후 한 폭의 그림이 연상되어 자주 드나들게 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곳저곳에서 봉사하시는 신도분들 모습이 편안하게 느껴질 즈음 주차장 쪽에서 사람소리가 들리며 시끌시끌하였다. 지금 생각하니 밀반찬 하는 날이 아니었나 싶다. 마음으로 몇 번 인가 기웃거리려도 용기가 나질 않아 주춤하고 있으니 한 보살님이 해보라고 권하여 문을 두드렸다.

어렵게 시작한 밀반찬 봉사를 하면서 한 사람의 역할과 그 한 사람이 모여 큰 힘이 된다는 진리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살아가는 이야기, 부처

님 공부하는 방법, 집안 이야기 등 사랑방 역할을 하는 삶의 활력소를 채우며 즐겁게 일을 하였다.

봉사하는 일이 일상적인 상태로 진행되고 편안하게 되자 정신자세도 느슨해짐을 느끼면서 지난날을 돌이켜보게 되었다. 과연 나는 시작할 때의 초심으로 변함이 없는지 자만이 싹트지는 않았는지 중간점검을 하게 되었다.

다른 봉사를 10년 이상을 하면서 이제 봉사자의 자세에 대한 개념을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이해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를 일깨우기 위한 과정적 학습을 잘 선택한 것 같았다. 봉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이 방법을 선택한 나에게도 칭찬을 해주고 싶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즐겁고 행복한 봉사를 하려면 나는 살짝 감춰두고 어떤 일이 주어져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해본다. 끝으로 나를 성숙하게 변화시켜준 주위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미래의 긴 시간까지 나눔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 또한 행하고 실천하는 불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아

야겠다고 다짐을 해본다. 나눔을 생활화 하시는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총 344가구, 단체1곳)

1째주 - 다시마튀각, 오이, 부추 무침

2째주 - 김치

3째주 - 돼지불고기,

캔(고등어, 콩치, 깻잎)

4째주 - 비름나물, 새우마늘종볶음

결식이웃후원계좌 :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5-458

<토요법담 - 법구경>

토요법담에서 '법구경'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주지스님의 법구경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간결하고도 쉬운 계승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불법에 대한 이해도 넓혀 가고 삶의 지혜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일시: 매주 토요일 2시
- 장소: 설법전



서울모임

덕현스님 맑고 향기롭게 제2대 이사장으로 선임

본 법인에서는 2010년 5월 16일(일) 제39차 이사회를 개최, 현 이사장 직무 대행인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주지 덕현스님을 제2대 이사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지난 3월 11일 초대 이사장인 법정스님께서 입적 후 초재 때 열린 제34차 이사회에서 스님의 49재 이후에 새 이사장을 선임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덕현스님의 이사장 취임 관련 일정은 추후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2010 여름 선수련회 참가접수 받습니다

7.24일 ~ 8.10일

청소년, 어린이, 일반인

맑고 향기롭게 길상사 여름 선수련회가 7월 24일부터 총 4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금년에는 청소년 수련회가 신설되었으며 참가신청은 길상사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일정

- 1차 청소년 : 7.24~26(2박3일)
정원 70명. 참가비 6만원

- 2차 어린이 : 7.27~29(2박3일)
정원 90명. 참가비 6만원
- 3차 일반인 : 7.31~8.3(3박4일)
정원 70명. 참가비 12만원
- 4차 일반인 : 8.7~10(3박4일)
정원 70명. 참가비 12만원

<입금 계좌> 신한은행

100-021-136827 길상사

※ 문의: 02-741-4696~7 (모아라 팀장)

자연을 찾는 사람들의 숲기행

<2010년 경상북도 숲을 찾아서>

6월 19일(토), 봉화 청량산 도립공원 박희준 선생님과 함께 할 예정이며 신청은 사무국으로만 가능합니다.

- 선착순 42명(남을 경우는 대기자)
접수시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여행자보험용) 필요
참가신청 후 3일 이내 입금시 참가 확정. 홈페이지 명단 게시.

불참시 행사 2일전까지 1회에 한해 다음달로만 이월 가능

<회비> 회원(직계가족포함) - 20,000원

비회원 - 25,000원

<입금 계좌> 외환은행

301-22-00270-1 (사)맑고 향기롭게

- 불참시 환불 규칙
행사 4일전: 전액 환불

(송금수수료 본인부담)

2일전: 참가비의 50% 환불

1일전~당일불참:

참가비 숲기행 진행비로 적립

(환불 안됨, 다음달 이월도 불가)

※ 문의: 02-741-4696~7 (홍정근 팀장)

- 남은 일정: 7월 17일 - 문경새재 옛길 / 8월 21일 - 치산계곡(산자락 계단식 농경지 사잇길과 계곡) / 9월 18일 - 죽령옛길(소백산 자락길 2구간의 일부) / 10월 16일 - 죽계계곡~초암사~비로사~삼가리 구간(소백산 자락길 1구간의 일부)

횡성에서 정성껏 보내는 제철꾸러미 주문하세요

매일 반찬거리 힘드시죠? 일주일 먹을 반찬거리를 제철에 나는 농산물로 보내드려요. 횡성지역 귀농자와 여성 농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횡성영농조합(텃밭)에서 이름 그대로 제철에 나는 농산물을 텃밭에서 일하는 농부님들이 정성껏 꾸러미로 함께 만든 것입니다.

- 제철 꾸러미 한달 4회 100,000원
구성 - 두부, 유정란, 장류, 절임식품류, 나물 및 건나물류, 채소, 과일, 산나물, 잡곡 등
- 간편 꾸러미 한달 4회 48,000원

구성 - 두부, 유정란, 제철농산물 2종 또는 반찬 1종

알뜰나눔장터 개설

아나바다 정신을 되살리기 위하여 넷째주 일요일마다 맑고 향기롭게 알뜰나눔장터가 오는 6월 27일 길상사 뜨락에서 마련됩니다. 회원들과 함께하는 알뜰나눔장터에는 헌옷, 헌책, 천연화장품, 의류재활용소품 등이 판매됩니다. 이날 함께할 벼룩시장에는 회원 여러분도 직접 참여해 보세요. 미리 신청 접수 후 직접 체험 해 보는 벼룩시장, 수익금의 80%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결식후원금

4/1 ~ 4/30 14,064,200원

결식이웃 조리 자원활동가 모집

매주 목, 금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2시 굿은일도 함께 할 수 있는 분. 특히 매월 둘째 목요일 김치 담그기에 남자 대환영.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인증센터로 자원활동시간 인증 관리됨.

6월 서울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모회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일손 돕기

- 정기자원활동 / 매달 첫째 일요일(6월 6일, 7월 4일) / 오전 8시 30분 /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 / 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뽀기) / 일반 자원활동가
- 결식어웃 후원 밑반찬 조리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6월 3일, 4일, 10일, 17일, 18일, 24일, 25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2시 / 맑고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 / 양념이 묻어도 좋을 일복 차림(※ 10일은 김치 담그는 날)
 - 진인선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 / 둘째 일요일(6월 13일) 오전 8시 20분 경복궁 건춘문 앞 출발
 - 서울시립요양원 정기 자원활동 / 첫째 목요일(6월 3일) 오후 1시 30분 / 함께 노래 부르기 / 지하철 7호선 수락역 1번 출구 집결/일반 자원활동자(※ 시설 사정으로 이번달은 첫째 목요일만 활동함)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6월 7일, 14일, 21일, 28일), 매월 첫째 수요일(6월 2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 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 / 다른 요일 자원활동자도 수시 모집 중 / 자원활동자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 활동 /

- 매달 첫째 셋째 일요일(6월 6일, 20일) / 오전 9시30분 ~ 12시 / 청소년 봉사자
- 천연화장품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3시(삼푸, 로션, 세럼, 한방비누 순으로 만듦) / 소강당 옆 거사림 / 선착순 8명 마감 / 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강좌 / 매주 화요일 / 오후 2시 30분 / 소강당 옆 거사림 / 선착순 10명 마감
 - 전화말벗봉사 월례회의 / 6월18일(밑반찬 자원활동 참여)
 - 각 봉사팀 모듬장 회의 / 6월 22일(화) / 매달 넷째 화요일, 오후 7시 / 서울모임 사무실
 - 길상사 - 맑고 향기롭게 선수련회
신참반: 6월 19 ~ 20일(셋째주)
구참반: 6월 26 ~ 27일(넷째주)
토요일 오후 3시 ~ 일요일 오후 4시 까지 / 수건과 세면도구, 양말 준비 (※ 구참반 수련회는 길상사 불교대학 수료생과 함께 합니다.)
 - 맑고 향기롭게 회원 만남의 날 / 6월 18일(금) / 오후 2시 / 설법전

일반사업후원계좌 :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3-129



부산모임(051-898-2672~3)

6월 부산모임 정기활동 안내

- 홀로어르신 밑반찬 지원활동
 일자 : 2/9/16/23/30일 (매주 수요일)
 10:00~12:00
- 장애우 이동목욕
 일자 : 9/16/23/30일 (매주 수요일)
 09:00~13:00
- 연화원 어르신 목욕활동
 일자 : 3/10/17/24일 (매주 목요일)
 10:00~13:00
- 노인건강센터 어르신 목욕활동
 일자 : 3/17일 (1, 3주 목요일)
 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어르신 목욕활동
 일자 : 10/24일 (2, 4주 목요일)
 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점심급식 준비 및 배식, 설거지
 일자 : 3/10/17/24일 (매주 목요일)
 09:30~13:30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일자 : 4/11/18/25일 (매주 금요일)
 10:30~13:0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및 장애우 이동목욕

일자 : 4/11/18/25일 (매주 금요일)

10:00~12:00

- 부산시립노인전문병원 어르신목욕활동

일자 : 4/11/18/25일 (1~4주 금요일)

09:30~12:00

- 5일(토) 물론대 종합사회복지관
 (매달 첫 번째 토요일)
- 7일(월) 자원봉사자회의
 (매달 첫 번째 월요일)
- 8일(화) 참사랑노인건강센터
 (매달 두 번째 화요일)
- 15일(화) 지역정화활동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15일(화)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25일(금) 용두산공원 무료급식
 (매달 네 번째 금요일)
- 26일(토) 용두산공원 무료급식
 (매달 네 번째 토요일)

경남모임(055-266-0170)

6월 경남모임 정기활동 안내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 활동 - 매월 셋째주 수요일(6/16) / 오전 9시 30분 사무국출발 / 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활동 -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시~14시 (6/22) / 매주 토요일 오전10시~14시 (6/5, 12, 19, 26) / 창원 사파복지회관 내 식당 / 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 아카데미 - 저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 / 매월 첫째주 금요일 오후5시 (6/4)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활동(은비네 외 9가구) -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6/11, 25) / 쌀, 밑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6/4, 11, 18, 25)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전 11시(6/23) / 사무국 ☎ (055)266-0170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 - 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 가입신청 ☎ (055)266-0170

대구모임(053-753-8883)

6월 대구모임 정기활동 안내

- 자연문화유적 탐방을 6월 6일 지리산 아래봉 일원으로 떠납니다. 아침 8시 이마트 만촌점 앞 출발 / 동

참비: 2만원 / 준비물: 등산복장, 점심도시락, 간식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나누기, 밑반찬지원
매주 수요일(2일, 9일, 16일, 23일, 30일) 11시 - 음식조리, 19시 - 말벗(배달) 봉사 / 자원봉사자수시모집
- 소리봉사/ 녹음봉사
매주 월요일: 개별녹음 / 정기모임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7시
- 룸비니동산 자원봉사 활동
매월 둘째 토요일 12일(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 활동
15일(화) 대구은행 본점 9시 출발 / 목욕, 식사케어, 빨래정리, 말벗 등
- 황금복지관(주방보조 및 기타정리 봉사)
매월 첫째 화요일(1일) 11시부터
- 첫마음 정기 편집회의 / 둘째 토요일 12일 오후 3시
- 운영위원회 회의 / 첫째 금요일(4일) 본회 차담실



덕현 님의
제2대 이사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불교 입문 강좌>

불교에 다가서는 첫 걸음, ‘불교입문 강좌(구 기초교리반)’가 여름에도 개강합니다. (예불, 부처님 일생, 기본 교리, 신행 및 수행 등 총 11주)

- 개강: 6월 10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길상사 설법전
(문의: 02-3672-0036)

<불교대학 여름특강>

길상사 불교대학 여름특강이 일요일 오후 2시 설법전에서 열립니다. 불교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 7월 4일(일) / 불교의 생명관 / 우희종 서울대 교수
- 7월 11일(일) / 불교의 여성관 / 조승미 동국대 강사
- 7월 18일(일) / 삼국시대의 불교미술 / 조정옥 ‘그림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저자

<English Meditation Class>

6월 1일부터 이스라엘에서 오신 수월스님과 함께 영어 참선반을 진행합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 개강: 6월 1일(화) 오후 7:30
(7:30~8:00 참선,
8:00~8:30 참선 안내·법담,
8:30~9:00 차담)
- 동참금: 무료
- 참가방법: gs_zencenter@naver.com
으로 이름과 연락처를 보내면 됩니다.

<법문 촬영 자원봉사자 모집>

길상사에서는 주지스님과 수련원장스님의 법문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홈페이지에 동영상(또는 음성)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법문이 늘어감에 따라 일손이 부족해 이런 일을 함께 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주로 촬영하게 되는 시간은 토요일법담(토요일 오후 2시)과 일요법회(일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종무소(3672-5945)로 연락바랍니다.

<신행단체 자원봉사자 모집>

- 보현회 - 후원(선열당) 봉사
- 합창단 - 찻집 봉사 및 음성 공양
- 문수회 - 도량 안내 및 안내실 봉사
- 지장회 - 법당 청소 및 재 관련 봉사
- 관음회 - 불기 닦기 및 수련회 봉사
- 보리회 - 도서관 관리

<6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및 기도>

- 일요법회 / 첫째 주는 주지스님, 나머지 주는 정화스님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설법전
- 토요법담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설법전
- 삼천배기도 / 6월 12일(토) 8시 반
- 극락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10시, 저녁 7시
- 지장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10시, 저녁 7시
- 거사림 정기법회 / 1, 3주 일요일 오후 1시 / 설법전
- 보현회 정기법회 / 매월 음력 초하루 / 6월 12일 오후 1시
- 문수회 정기법회 / 매월 셋째 월요일 / 6월 21일 오후 1시
- 지장회 정기법회 / 매월 둘째 월요일 / 6월 14일 오후 1시
- 합창단 정기법회 / 매월 넷째 화요일 / 6월 29일 오후 1시
- 청년회 정기법회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도서관
- 어린이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소강당
- 청소년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도서관

“삼소음악회”

염소 한 마리의 희망

에디오피아 소녀·여성돌기



삼소회(三笑會)는 유엔 재단의 소녀·여성기금 창설멤버로 불교 비구니 스님과 천주교 수녀, 원불교 정녀 등으로 구성된 한국여성수도자 모임입니다.

- ▶ 일시 : 6월 10일(목) 저녁 7시~9시
- ▶ 장소 : 길상사 극락전 앞 야외무대
- ▶ 출연진 : 이생강(대금), 김광석(기타), 길상사 주니어챔버 등
- ▶ 공연 무료. 기금은 성의껏
- ▶ 성금계좌번호
우체국 100362-01-003471 삼소회(최규진)
농협 153-12-718351 최규진(삼소회)
국민은행 211001-04-249596 최규진(삼소회)
- ▶ 삼소회 (02)723-2996
서울 종로구 안국동 83번지 2층

〈무소유〉만 법정 스님의 책?

요즘 〈무소유〉를 구하려는 분들이 또 많아진 모양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봐도 좀체 무소유 책 구하기가 힘들다, 어떻게 하면 〈무소유〉를 구할 수 있느냐, 혹 맑고 통해서 살 수는 없느냐고, 도대체 왜 스님의 저서를 절판을 하느냐, 〈무소유〉만 풀어주면 어떠냐”하는 전화들이 사무실로 걸려 옵니다. 몇몇 사찰들에서는 〈무소유〉를 법보시용으로 대량구매를 하고자 한다고도 합니다.

어른스님의 저서에 대한 관심이 이렇듯 식지 않는 것은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른 스님께서서는 생전 〈영혼의 모습〉을 시작으로 40여 권의 저서를 내셨습니다.

〈무소유〉의 글 중 상당수가 첫 저서인 〈영혼의 모습〉에 실려 있기도 하며 〈맑고 향기롭게〉란 저서는 스님께서 손수 가려뽑은 글들을 책으로 엮어낸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외 많은 책들도 스님의 솔향기 머금은 청정한 가르침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무소유〉만 찾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다 소화된 책을 굳이 찾으려 두리번거리기보다는 아직 서가에 꽂혀 있는 스님의 다른 책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울음이 새기기에 더 정성을 들이면 어떨까요? 아니 종이로 된 책을 소유하려 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머리에, 손에, 눈에, 발에 스님의 가르침들을 남김없이 실어내고자 자신을 되새기기에 더 노력을 하는 건 어떨까요?

이래저래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